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4호 【루계 제25673호】 주체106(2017)년 6월 13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로씨야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친선의 오랜 력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있는 두 나라 관계가 쌍방사이에 합의된 공동문건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고 나라의 안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주체106(2017)년 6월 12일 평 양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한생》
민주꽁고단체 블레찐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일 블레찐을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한생》 등 제목의 글들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의 보검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였다, 또한 정력적인 령도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채택발표되게 하시여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고 블레찐은 강조하였다.

블레찐은 언제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폭잠과 줴기밥으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간주하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였다고 전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고 블레찐은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에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간주되고있는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이 되는 날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비행술을 과시한 젊은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미국의 인터네트웨브싸이트 《구글뉴스》, 인터네트홈페지 《데디트》는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싸일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조선의 결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나친 제재가 군사적대응을 초래할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라고도 할수 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인터네트통신 《NK NEWS》는 이번 경기대회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그 어떤 대상물들도 일격에 소멸해버릴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최근 북조선은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비롯하여 이동목표물에 대한 타격능력을 비약적으로 갱신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사진분석을 통하여 목표물타격의 정확성이 매우 높은데 대해 감탄하고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로씨스까야 가제따》, 《이즈베스찌야》, 렌떼웨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렌트르TV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트, 웨스찌, 루, 루쓰까야 쁠라네따, 인터네트TV 《미르 24》, 인디아의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이》, 중국의 신화통신, 홍꽁 봉황위성TV방송, 에질트신문들인 《알 미쓰리 알야움》, 《알 파즈르》, 영국신문 《더 썬》, 도이췰란드반체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지도하신 소식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임의의 지역의 적대상물들을 초정밀타격할수 있는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룩된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미국놈들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갈것을 확신한다고 하시였다.

영국신문 《텔레그라프》는 북조선이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미싸일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될 때마다 미국놈들의 고민이 커질것이며 괴뢰군깡패무리들이 점점 맥이 빠지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번 발사체는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열병식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로케트분야에서 북조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인정하고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테르화스통신, 신문들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로씨스까야 가제따》,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루쓰까야 쁠라네따, 레그늄, 인터네트TV 《미르 24》, 인디아의 ANI통신, 유엔아이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스테이츠맨》,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NHK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홍꽁 봉황위성TV방송, 에질트신문들인 《알 파즈르》, 《알 야움 알 싸비아》, 《알 미쓰리 알야움》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북조선 신형유도미싸일시험발사에 성공》, 《북조선 탄도로케트시험발사후 미국에 더 큰 《선물보따리》를 보내게 될것이라고 경고》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부문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적극 추진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산악같이 떨쳐나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달동안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8만여㎥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600여m의 도갱굴진, 3천여㎥의 콩크리트치기 등을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으로 일할 때 틀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면서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이와 함께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맡은 공사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전탄에도 토량처리와 암반처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여러 대상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도들에서 달려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밑에 공사장마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맨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려단의 일군들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또한 돌격대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물길공사의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련일 실적을 올리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잠관공사와 땅굴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려단에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맡은 대상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대대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지난 5월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위훈이 창조되였다.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은 잠관공사를 와닥닥 해제낀 기세로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남포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맡겨진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어려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암질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도갱굴진과 굴확장, 콩크리트치기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 철

—평안북도려단에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때에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8일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50돐이 되는 6월 13일을 앞두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사출장화, 수지벽지, 비옷, 가방, 놀이감 등 년간지표별생산계획을 반년이상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고있는 선군시대 영예군인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접한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섰다. 한말씀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를 타자면 모두가 하루를 보통때의 백날맞잡이로 줄달음쳐 살아야 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증산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당, 행정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떨쳐나선 영예군인로동계급의 기세를 북돋아주었다.

생산공정마다에서 오늘의 실적이 다음날에는 갱신되고 공정능력을 뛰여넘는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합성수지직장의 로동계급은 모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4단로루키에서 매일 1.6배이상의 바닥깔개를 생산하였다. 지난 3월에는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내줄 바닥깔개 전량을 20일동안에 생산하는 최고기록을 창조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영예군인로동계급의 본때를 과시하였다.

사출장화직장의 로동계급도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년간 장화생산목표를 강행돌파하였다.

비옷직장 로동계급은 종전기준량을 타파하여 직장앞에 맡겨진 년간계획을 150일동안에 초과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히 완구작업반에서는 지난 5월에 놀이감생산에서 최고기록을 세우고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놀이감들을 전국의 수많은 유치원, 학아소들에 보내주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자력자강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남자장화와 녀자장화의 생산성을 각각 1.5배, 1.8배로 높였다.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설비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중요원료, 자재를 제힘으로 해결한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명제품개발에 달라붙어 6종에 20여가지의 새 제품들을 훌륭히 개발하여 내놓았다. 특히 공장에서 최근에 새로 개발한 2색수지벽지는 생산되자마자 수요자들속에서 우리 제품의 질이 높다는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뗄은 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차게 벌린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렇듯 고결한 충정으로 만리마시대의 갈피에 기적과 위훈의 페지를 자랑스럽게 아로새기였다.

특파기자 김경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년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완수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할 열의 안고
자강도에서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를 잠업도, 비단도로 만들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지난해보다 잠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져 누에고치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에서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잠업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자강도에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잠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잠업부문 일군들은 누에고치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뜻깊은 올해에 보다 높이 세운 누에고치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도에서는 장강잠기구공장에 소독약생산공정이 훌륭히 꾸려진데 맞게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소독약과 누에먹이첨가제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도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도적인 잠기구전시회와 잠업부문 일군들의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한데 이어 잠박 등 잠기구들을 장강군 읍협동농장과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누에고치생산단위들에 보내주었다.

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올해 누에고치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는 한편 잠업부문 일군들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누에치기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를 앞질러가며 보장해주어 봄누에치기에서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도안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고치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불어치고있다.

그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서있다. 누에고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봄누에치기에 들어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초산군 련풍잠업전문협동농장과 고풍군 신창잠업전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뽕밭관리와 봄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면서 정보당 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고치생산량이 제일 높았던 지난해의 기후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먹이타산을 정확히 하고 누에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영양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만포고치농장에서는 알깨우기, 누에관리, 가설막만들기 등 모든 공정을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그것이 고치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올해 농장으로 자원진출한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10정보 뽕밭을 맡아 봄누에치기에 온갖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초산군, 고풍군, 만포시, 위원군안의 협동농장, 잠업작업반, 잠업분조들에서도 봄누에고치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흥

내화물생산의 주체화 실현
장산광산에서

장산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얼마전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생산공정의 정상운영에 완전히 성공하였다. 수입연료에 종지부를 찍은 광산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많은 량의 질좋은 내화벽돌을 생산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의 자랑찬 한페지를 기록하는 이 뚜렷한 성과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지나온 혁명의 년대기마다 내화물생산성과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해온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 생산공정을 일떠세운데 맞게 생산정상화를 위한 창조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광산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맞게 가스발생로와 소성로계통을 개조하면서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이 길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더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였다.

당, 행정일군들은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을 대중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심어주며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방송선동, 직관선전이 참신하게 진행되는 속에 단위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일군들은 대오의 기수가 되여 내달리고 로동자들은 스스로 일감을 두룽, 세룽씩 맡아 수행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소성로개조전투를 벌리였다. 기술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탐구의 새날을 맞고보내며 공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갔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총궐기한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줄기찬 투쟁은 자랑찬 결실을 안아왔다. 덩지큰 소성로등체가 보름동안에 축조되고 측열체를 비롯한 설비, 장치들이 기술적요구에 맞게 조립되였으며 가스발생로의 정상가동에서 관건적인 점결제문제와 조작방법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이밖에도 열복사와 단열재료기술을 비롯하여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들과 새 기술성과들이 창안도입되였다.

광산의 일군들은 설비개조전투와 동시에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새 공정의 미더운 주인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로동자들은 기술자들의 도움밑에 매 공정의 기술적원리와 설비들의 동작원리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하루일이 끝나면 너도 나도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아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켜갔다. 이 나날에 자체실정에 맞게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였으며 로동자들은 주체화된 생산공정의 미더운 주인으로 성장하였다.

금속공업성의 일군들도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수시로 과학연구기관들에 찾아가 걸린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광산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내화물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함으로써 수입연료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내화벽돌생산을 편파성없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되였다. 이곳 기술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주체화가 실현된 내화물소성공정의 생산성은 종전보다 1.2배이상 높으며 제품의 기술적지표들이 수입연료를 쓸 때보다 제고되였다.

본사기자 전성삼

일군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위대한 품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시대를 격동시키는 130여일간의 낮과 밤이 흘렀다.

이 나날 우리의 국방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주체적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사변들을 다발적, 련발적으로 안아옴으로써 우리 조국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장쾌한 통장훈을 부르며 방대한 려명거리가 완공되여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정 고경찬영웅소대를 비롯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력혁신자들과 평남탄전의 청년돌격대들, 수많은 생산단위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위훈이 창조되였다.

사회주의강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지기 위한 만리마선구자대회로 향하는 우리 조국의 하루하루는 이처럼 혁혁한 위훈을 창조해가는 만리마기수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비상한 의미를 안고 벅차게 흐르고있다.

그러면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우리 일군들이 맡은 단위와 초소들에서는 만리마기수들이 얼마나 배출되고있는가.

시대는 이렇게 묻고있다.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본분을 다하는 길은 성스러운 혁명생애의 나날 자신들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뼈에 새기고 그대로 살며 일하는데 있다.

* *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승리의 직선주로로 폭풍노도치는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은 기마수나 같다. 어떤 말이든 기마수가 고삐를 당기는쪽으로 가게 되여있는것처럼 일군들이 자기 단위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이 말씀에는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만리마시대에 거대한 활력을 부어주기를 바라시는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핵심골간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당부를 뜨거운 마음으로 더듬는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인 주체100(2011)년 10월 어느날이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결국 당의 령도적권위를 훼손시키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당의 핵심들인것만큼 령도자의 사상과 구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투사가 되여야 하며 높은 사업실적으로 령도자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려는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김정은동지를 진심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령도자를 받드는 마음이 진실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고, 령도자를 받드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받드는것이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드는것이라고, 일군들은 순결한 량심과 높은 의리심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가의 생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게 찬양되는것은 모든것을 다 버리고 잃는다 해도 혁명적의리에 끝까지 충실한 생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의리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품성상문제가 아니라 혁명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로, 입심단결의 초석에 관한 문제로 중시하시였다.

혁명적의리를 떠나서는 참다운 동지애에 대해서도 령도자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특유의 의리의 세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서 바라신 의리, 이는 일군들 한사람한사람을 품들어 키워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길에 세워준 위대한 수령과 영광스러운 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순결한 량심이였다.

당과 령도자에 대한 순결한 의리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참다운 혁명가의 손길로 따뜻이 이끌어주신 하많은 이야기들중 일부를 적으려 한다.

수령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일군들은 수령에 대한 순결하고 변함없는 충정을 지니고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생각을 하나 하여도 수령의 사상대로 하고 한발자국 걸어도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하며 일을 한가지 하여도 수령의 의도대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원한 김책동지가 바로 그런 참다운 일군의 전형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 1월말, 김책동지의 서거 50돐이 되는 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김책동지가 우리 혁명의 령도중심을 꾸리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수령님께 충신이 많았지만 그들가운데서 첫째가는 충신은 김책동지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창작완성하도록 이끌어준 사실, 어중이떠중이들이 제가끔의 주의주장을 들고나올 때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옹호하여 누구보다도 견결히 투쟁한 공적, 새 조국건설시기 빈터우에서 수풍발전소대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하여 전력문제를 풀었으며 철도수송과 금속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한 나날들, 경제와 기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지만 높은 충정으로 수령님께서 산업을 맡아보라고 하시면 산업을 맡아 추켜세우고 병기생산을 맡아보라고 하시면 병기생산을 맡아 수령님의 구상대로 병기를 생산하였으며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무슨 일이나 스스로 맡아 제때에 해제낀 이야기…

김책동지가 남긴 생의 흔적을 더듬어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김책동지와 같은 충실한 일군이 필요하다고, 일군들은 김책동지처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진짜배기혁명가, 참다운 충신이 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김책동지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각오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우리 혁명이 아무리 간고하고 난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헤쳐나갈수 있으며 경제도 빨리 추켜세울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간곡한 당부를 뼈에 새기고 결사의 신념과 비상한 사업실적으로 만리마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일군이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 대중이 따르기마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대중을 열렬히 사랑하며 따뜻이 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간의 아름다운 향기인 리해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속을 태우기도 하고 참아내기 어려운 일도 용케 참아내면서 묵묵히 자식들을 키워나간다고, 그 숭고한 사랑속에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에게 바치는 어머니의 한없는 리해심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일수록 누구보다도 리해심이 많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리해심과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해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분계선마을을 찾으시였을 때 월남자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남편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가고 하시며 눈물겨워하시자 모두가 친부모를 만난듯 울음을 터뜨린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그 무한한 리해심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해심이 없는 일군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것은 자신의 신조이라고 그루를 박아 교시하시였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길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사람에게서만 우러나오는것이 진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여야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일수 있다고, 사람들은 비록 말은 류창하게 하지 못하여도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일군을 믿고 따르게 되는 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일군을 외면할 사람이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늘 가슴에 간직하고 생활하는 일군들이 일하는 단위에서는 일군들과 대중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그 어떤 험산준령도 손잡고 웃으며 넘기마련이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가 대중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이끌어야 할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대중의 거울이 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아무리 정치사업을 하여도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풍모문제를 매우 중시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고락을 함께 나눌줄 아는 일군만이 그들에게 간고분투하자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공격할 때에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섰고 철수할 때에는 맨뒤에 섰다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섰던 바로 그 위치가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설 자리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대중의 거울이 되자면 자신들부터가 검박하여야 한다.

남보다 잘사는것을 수치로 여길줄 알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일군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요구성이였다.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대접이나 받을 궁리만 하면서 인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강건너 불보듯 하면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경향에 대하여 엄격히 경계하시였다.

사회주의를 푸르싱싱한 거목에 비유하면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는 그 거목을 선채로 말리우는 기생충과 같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망하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특권행세를 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관료주의를 경계할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였다.

어느해 겨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조건이 불비한 곳에서 일하는 어느 한 기관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그런데서 일을 시키는 일군이야말로 관료주의자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관료주의의 표현형태인 조폭성은 수양부족과 정신적인 무기력에서 나오는 행동으로서 혁명적인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의 조폭성은 군중에게 호령하고 욕설하는것과 같은 외형적인데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사업을 면밀하게 조직하지 않고 그저 밀어내려고만 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직사업도 짜고들지 않고 사업조건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밀어내는데만 눈을 밝히고 다불리는것은 조폭한 행위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할데 대한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덮어놓고 내리먹이는것은 관료주의라고, 군중은 이런 관료주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기에는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려도 속는 사람이 좀 있었지만 의식수준이 높아진 오늘에는 군중이 관료주의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을 보고 웃는다고, 결국 일군들이 방법론이 없이 일하면 관료주의자가 되고 군중의 웃음거리가 되여 도태되고만다고,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시였다.

오늘날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에 대한 민감성문제는 생명과도 같다.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는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이며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준이다.

당의 의도대로 일하는 일군들은 례외없이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할뿐이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들이다.

일군의 징표는 혁명성이다. 당의 령도적권위는 그 핵심력량인 일군들의 비상한 혁명성으로 보장된다.

일군의 능력과 기질을 보증해주는 자양분이고 실천력의 주요한 정표인 혁명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의 척도이며 혁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분초를 아껴가며 사업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작전하여야 한다고, 특히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일군들이 한시간 덜 자고 분초를 쪼개가며 일할수록 당의 구상이 관철되여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일군들의 혁명성과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는 한정된 로동시간이나 로동정량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일군의 로동시간은 하루에 20시간이 필수도 있고 24시간이 필수도 있다고, 혁명가의 투쟁은 시간이나 로동정량으로 계산할수 없다고, 혁명가의 생활자체가 사업과 투쟁과정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라는 부름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각으로 피를 끓이는 일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부탁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 열화의 일념으로 순간순간 자기를 채찍질하는 일군은 비상히 앙양된 혁명성으로 아름다운 생의 흔적을 남기기마련이다.

승리자들의 대회,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앞으로 몇달 남지 않았다.

영광의 대회를 우리 단위, 우리 종업원들은 당당히 맞이할수 있는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이런 물음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일군, 이 물음앞에 자기의 당성을 검증받는 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상심천의 하루하루를 빛내이는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의 사명과 의리를 다할수 있다.

혁명의 년대마다에서 수령에 대한 의리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투쟁과 진격의 앞장에서 나팔수, 선봉투사의 영예를 빛내인 충직한 일군들이 이땅 어디에나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만리마시대는 활력에 넘칠것이며 침략의 무리들을 기절초풍에 하고 인민을 산악같이 믿어받드는 대비약의 포성은 날로 장쾌히 울릴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몸소 저수지물맛까지 보아주시며

《돌아볼수록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아직까지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농업박사이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어찌면 주석님께서 그처럼 농사에 박식하시고 한생을 농업에 종사하여온 우리 농업박사들보다 더 많은 실농경험을 가지고계시는지 의문을 풀수 없다.》

이것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농촌을 돌아본 외국의 한 농업박사가 터놓은 진정이다.

여기에 외국의 그 농업박사가 틀림없어하던 문제에 해답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환갑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방금 모내기를 끝낸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누런빛을 띠고 시들어가는 어린 벼모들이 첫눈에 안겨들었다.

걱정어린 시선으로 논배미들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에게 벼가 왜 저런가고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하루에도 몇번씩 돌아보는 논배미들이였지만 딱히 그 원인을 알수 없었던 일군들은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논두렁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시고 시들어가는 벼포기 하나를 뽑아드신 후 접도록 살펴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것이 너무도 죄스러워 한 일군이 이제 비가 오면 일없을것 같습니다라고 아뢰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하늘을 믿고 농사를 지을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벼밑에서 저 벼밑로 걸음을 옮기시며 누런빛을 띤 벼모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것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짚이는데가 있으신듯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 농장에서 저수지물을 쓰지 않고 대동강물을 그대로 끌어다 쓰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럴줄 알았다고 하시며 지금 대동강물에 소금기가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끌어다쓰니 벼가 짠물의 피해를 받아 누렇게 시들어갈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 원인을 밝혀주시였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는 이 고장 농민들도, 농업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도 걱정만 하였지 알수 없었던 원인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농장에 대동강물을 퍼올린것이 아니라 저수지물을 직접 대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저수지에서 농장까지 관개수로를 새로 파자면 돈이 많이 들고 자금이 들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저수지물을 거꾸로 끌어다 벌에 대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누런빛을 띠며 시들어가는 어린 벼모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그냥 포전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러는새 어느덧 하루해도 뉘엿뉘엿 저물어가고있었다. 그 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곧바로 저수지로 향하시였다. 저수지물에 소금기가 있지 않는지 직접 알아보시기 위해서였다.

저수지로 가는 산비탈을 오르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좀곧 시들어가는 벼모들이 있는 포전쪽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저녁해가 진 저수지두리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천천히 물가로 걸음을 옮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저수지물을 뜨시여 맛을 보시였다.

농사일이 얼마나 걱정되시였으면 저수지물맛까지 보시려 하는 걱정에 일군들은 모두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가져갔다.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수지의 물은 소금기가 없으니 빨리 이 물을 보내주라고 화신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그후 소금기가 없는 저수지의 물이 농장벌에 흘러들게 되였으며 누렇게 병들어가던 논벼들은 다시금 푸르싱싱 자라게 되였다. …

사랑이였다. 헌신이였다.

풍요한 대지를 이루는 이 땅 한치한치를 살핌보다 더 귀중히 여기신 사랑, 어린 모 한포기한포기에도 정과 열을 깡그리 다 바치신 헌신이였다.

바로 그 류례없는 사랑과 헌신이 농업박사들도 삼가 머리를 숙이게 한 비범한 령도를 낳게 한 원천이였다.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논배미는 이른새벽에도 농장벌을 걷고 또 걸으시였으며 만민의 추복을 받으셔야 할 생신날에도 이 땅을 뜨거운 가슴에 안으시고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우리 수령님.

그 불멸한 은공 우리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본사기자

논머리에서 들으신 로인의 귀속말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이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속에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고 많은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 초여름날에 있은 일이다.

열두삼천리벌의 한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논머리에서 물고를 보는 로인을 만나게 되시였다.

우리 장군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로인은 그이의 더없이 소탈한 인품에 저도모르게 끌리였다.

친근한 대화가 시작되였다.

아침에 무엇을 잡수셨는가고 물으시는 그이께 로인은 흰쌀밥에 국 한그릇을 놓고 먹었다고 말씀드리였다.

생활에서 애로는 없는가고 다시금 물으시는 그이께 이번에도 로인은 솔직한 대답을 드리였다.

로인의 말을 통하여 생활형편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요새 농촌에서 마늘이 한창인데 마늘절임을 담그어먹거나 풋마늘을 된장에 찍어먹을수도 있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로인은 머뭇머뭇하며 어줍게 웃을뿐이였다.

대뜸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마도 안주인이 아들딸, 손자에게 보내려고 마늘을 몹시 아끼는 모양이라고 하시였다.

《아니, …거 정말 신통히 알아맞히십네다. 우리 로친이 어간 짝쟁이가 아니라우.》

로인은 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기까지 하였다.

그 모양이 우스워 동행한 일군들도 즐겁게 웃음꽃을 피웠다.

그이께서도 허리에 손을 얹으신채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내 웃음을 거두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인에게 아침에 잡수신 국에는 기름을 넣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

로인은 말하기를 주저하였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 로인은 도움을 청하듯 그이와 함께 온 일군들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말씀을 안하시는가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혼자만 듣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로인의 입가에 귀를 바투 대시였다.

로인은 그이께 귀속말로 아뢰였다.

《이제는 부러운것이 없습네다. 그런데 먹는기름이 좀 풀렸으면 합니다. 이 고장엔 제가 잘된다우. 제물심으면 많은 기름을 얻을수 있지요.》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으신 귀속말의 내용이였다.

로인의 귀속말에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점을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집주변과 최뚝, 논뚝을 비롯하여 비정지에 기름작물을 심으면 거기에서만도 많은 기름을 얻을수 있다고 재우쳐주시였다.

그날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기름문제를 풀데 대하여 입일이 가르쳐주시였다는것을 강조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그루를 박으시였다.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인민들의 먹는기름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며칠지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인에게 오늘 정말 귀중한것을 말씀해주셨다고 겸허하게 이야기하시였다.

(귀중한 말씀이라니, 이 늙은이가 주책없이 올린 말이 어째서 귀중하다 하실가?!…)

후날에야 그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로인은 그이를 알아뵙지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그이의 고매한 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평범한 농촌늙은이가 무람없이 올리는 말도 중히 여기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는 한평생 이렇게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그들의 말도 정책에 담으시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시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였다.

해산을 출발하여 력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명활한 지략으로 보천보의 하늘가에 승리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 및 우등불모임에 참가하였다.

홰불행진 및 우등불모임을 통하여 그들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보천보에 타올랐던 승리의 홰불을 최후승리의 홰불로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항일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백두의 천고밀림에 력력히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새겨안으며 그들은 보서리샘물터를 지나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중흥동관에 올랐다.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인양 장엄하게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바라보며 리쳐올리는 답사행군대원들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의 산발들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삼지연군에 도착하였다.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항일혁명업적과 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체득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있는 삼지연군의 전변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그들은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거연히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돌아보면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며 백두산정에 오른 답사행군대원들은 맹세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로 뭉쳐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억세게 이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사령부귀틀집과 대원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리명수혁명사적지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이어 청봉, 진창숙영지를 찾은 그들은 사령부자리, 구호나무 등을 돌아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투사들의 고귀한 넋을 변함없이 이어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답사행군기간 그들은 혁명가요대렬합창경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농장에 어리여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강서구역 잠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자각안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

과학적인 비배관리는 알곡고지점령의 근본담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 계속혁신, 련속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당의 뜻대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작물비배관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속되는 가물속에서도 흐뭇한 밤, 보리작황을 안아오고 전야마다에 푸른 주단을 펼쳐놓음으로써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기세드높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비배관리를 짜고들어 풍년낟가리 높이 쌓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해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애써 심어놓은 곡식들이 풍만한 열매로 맺어지는가 쭉정이로 되고마는가 하는것이 오늘의 하루하루에 달려있다.

김을 매고 비료와 물을 주며 병해충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비배관리는 한해농사에서 품이 제일 많이 드는 련속공정이며 어렵고 복잡한 기술로동이다. 더우기 장마철과 삼복철의 예측할수 없는 기후변동이 농작물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지난 시기의 교훈은 모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순간의 해이도 없이 농작물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꾸준히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다시한번 신들메를 조여매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김매기전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손이 가는것만큼 곡식이 자란다. 논에 흙탕물을 일구어도 버가 자라고 호미소리만 들어도 강냉이가 자란다는 말이 있다.

논밭에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어도 농작물보다 생활력과 토양영양성분흡수력이 센 김이 많으면 그 효과를 높일수 없지만 김을 잘 잡으면 소출을 더 낼수 있다. 강냉이농사에서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낸 단위들의 경험은 김을 한번 더 매면 정보당 300kg이상의 알곡이 증수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농촌들에서는 포전별, 날자별김매기계획을 바로세우고 기계김매기, 손김매기, 살초제리용, 우렁이와 오리, 게사니놓아주기방법 등을 잘 배합하여 김잡이효과를 높여야 한다. 강냉이밭후치질을 깊숙이 하고 포기마다 북을 높이 주어 김이 돋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촌들에서는 온 나라가 떨쳐나 마련해준 귀중한 비료를 한줌이라도 랑비되지 않게 농작물의 품종별특성과 모를 낸 날자, 생육상태와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주는 시기와 량을 정확히 규정하고 철저히 지켜 그 효과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질소비료는 철저히 그대로 치지 말고 유기질복합비료와 유기광물질알비료로 질적으로 만들어 깊은 층에 주어야 비료손실을 줄이고 그 효과를 높일수 있다. 지난해 조절비료뿐아니라 아지비료까지도 깊은층주기를 하여 같은 비료량으로 정보당 10t이상의 다수확을 안아온 청단군 심형농장의 경험을 놓고보아도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틀들어 진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수 있다.

논농사이자 물농사이고 물을 떠난 농작물생육과 결실은 생각할수 없다. 물보장과 논물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올해 가물현상이 지속되여 봄철영농전투에 난관이 조성되였던 현실은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관수대책을 혁명적으로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물길관리소, 관개관리소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관개체계와 시설들이 온을 내게 하여야 한다. 논물관리를 과학적으로 잘하여야 뿌리의 활성을 높여주고 이삭당 알수와 여문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로화수식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깊은물대기를 하면 혐기성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뿌리가 썩고 그로 하여 벼무늬마름병, 벼열병 등 각종 병들이 겹쳐들어와 수확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의 극심한 이상고온속에서도 정보당 11t이상의 수확고를 기록한 숙천군 광천농장 제17작업반을 비롯한 다수확단위들의 경험은 과학적인 논물관리야말로 알곡증수의 중요한 고리라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야 한다.

올해의 변덕스러운 자연기후상태는 병해충발생률이 높아질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고있다. 농촌들에서는 예견성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병해충예찰을 강화하며 효능높은 여러가지 농약과 기생벌을 리용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병해충예찰사업에 큰 힘을 넣고 대용농약생산을 꽝꽝 내밀어 그 덕을 크게 본 안악군의 농사경험을 따라배워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대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선군의 혁명성과 우주에 뻗친 주체조선의 위력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절정에 달한 오늘의 엄혹한 환경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자기 땅에 더 든든히 발붙이고 자기 힘, 자기 기술로 더 많은 대용비료, 대용농약을 꽝꽝 생산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치도록 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고농도린세균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천연생물활성제 등 갖가지 대용비료와 성장촉진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작물가꾸기의 모든 공정을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는 과정이 곧 과학농사이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여기에 다수확의 근본담보,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기본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비배관리에 빼심을 들여야 한다.

모두다 전화의 나날 원쑤들의 맹폭격속에서도 한포기한포기의 곡식을 피땀바쳐 가꾼 1950년대의 애국농민들처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다수확단위들의 농업근로자들처럼 정성다해 농작물을 가꾸어 기어이 풍년가을을 안아오자.

농업성 국장 주철규

제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엽주군 외하협동농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은 때개농장을 책임진 일군들의 높은 실천력을 요구하고있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 농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있는 엽주군 외하협동농장 일군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끝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농장일군들속에서 논벼초기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깊은층비료주기를 놓고 심각하게 론의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비료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알비료성형기를 농장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것은 알비료로 깊은층비료주기를 하면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가루비료를 논에 뿌려줄 때보다 깊은층비료주기를 하면 같은 비료를 가지고도 더 높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일군들은 어떻게 해서나 알비료성형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여 깊은층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자면 농장자체의 힘으로 알비료성형기들을 만들어내야 하였는데 농장의 형편과 바른 영농사업으로 하여 일군들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리당위원장 리수남동무는 신심에 넘쳐 일군들을 바라보며 다수확의 성과를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자면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이 사업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각오하고 달라붙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자강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참호를 지켜가는 우리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보여줍시다.》

일군들모두가 당정책의 은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달려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뼈에 새겼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자체의 힘으로 알비료성형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제를 메고 뛰여들었다. 오늘의 알곡증산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비상한 자각, 우리 단위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 하늘아래에서 떳떳이 머리를 들고 살수 없다는 결사의 정신력이 모두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었다.

일군들은 하루에도 여러번 수리분조에 나가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료해하고 관리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해결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삼았다.

특히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앞제를 메고 자재보장을 철저히 따라세우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일군들의 말없는 이신작칙에 고무된 수리분조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과정에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알비료성형기들을 만들어내였다.

자기 사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늘 사색하며 영농방법을 실정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김강철

경험교환운동의 뚜렷한 생활력

안악군에서

요즈음 서해곡창 안악군에 가면 성능이 개선된 수천대의 깊은층비료주는기계를 일식으로 갖춘데 대한 자랑을 들을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농기계가 마련됨으로써 군안의 농장원들이 한여름의 뙤약볕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손로동을 하던 일이 이제는 옛말로 되어버리였다. 또한 깊은층비료주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 소출을 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다.

사실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이미전부터 여러가지 형식의 깊은층비료주는기계를 만들어 리용해왔다. 그러나 그 성능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현실을 대할수록 군일군들은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깊은층비료주는기계의 성능을 개선하여 농장원들 누구나가 즐겨 리용하도록 하자.

군일군들의 이런 결심에 군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부단한 경험교환과 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고 따라배우며 새로운 부속품과 합리적인 장치들을 창안제작하면서 이 농기계의 성능을 계속 개선해나갔다.

군에서는 올해에만도 깊은층비료주는기계의 시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하였다. 참가자들이 우수하게 평가된 농기계의 부속품이나 장치 등을 제눈으로 보면서 원리를 빨리 터득하게 된것은 더 말할것 없다. 누구나가 깊은층비료주는기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고 종전보다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여갔다.

엄곳협동농장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농장 일군들과 수리분조원들은 자기 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까지 찾아가 거기서 리용하는 이 농기계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새로운 착상을 무르익히였다. 예상했던것과는 달리 기계장치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애를 먹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드디어 농장에서는 비료공급장치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작업도중에 물기가 올라와 비료가 젖는 현상을 막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수십대의 깊은층비료주는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이 농장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다. 많은 농장들에서 길지 않은 기간에 여러차례에 걸친 깊은층비료주는기계의 기술개조를 진행하였다고 하니 이 하나의 실례를 통해서도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벌린 투쟁의 폭과 심도에 대해 잘 알수 있었다.

그 나날속에 이 농기계의 성능은 부단히 개선되여나갔다.

실례로 작업과정에 비료가 여름철의 높은 온도조건에서도 녹지 않도록 비료통안을 흰색으로 칠한것이라든가 비료공급계통의 어느 한 철판을 불수강판으로 교체함으로써 비료가 묻어나지 않도록 한것 그리고 용수철을 리용하여 일부 장치들이 더욱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한것 등을 들수 있다. 지력이나 품종특성에 맞게 비료량을 임의로 조절할수 있도록 한것도 좋다.

군에서는 해당 단위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비료를 물에 푼 상태에서 깊은층에 줄수 있는 기계와 면적이 작은 논배미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깊은층비료주는기계도 만들었다.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렇게 부단한 경험교환과 경쟁열풍속에 깊은층비료주는기계의 성능을 개선하였을뿐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그 대수도 훨씬 늘이였다. 그리하여 품이 많이 들던 깊은층비료주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본사기자 황철민

포전에서 키에 쏙쏙 들어가게

순안구역 동산협동농장에서

최근 몇해사이에 순안구역 동산협동농장이 일약 다수확농장으로 되였다.

지난해에만도 정보당 10t이상의 알곡을 생산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160%이상 넘쳐 수행,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도 시적으로 당당히 앞서나가는 모범농장…

이 농장에 대한 소문은 전야의 만리마선구자들을 찾아 쉬지없이 이어가는 우리의 호기심을 부쩍 끌어당겼다. 농장을 찾은 우리는 먼저 포전으로 걸음을 옮겼다. 농산제3작업반쪽으로 향하던 우리는 포전의 어느 한 부분에 고여있는 물을 손으로 퍼담아내며 농장원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관리위원장 방금옥동무를 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에로부터 실농군들은 일을 보지 않고 뿌리를 본다고 하였다.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봉천군 한촌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논물관리이자 뿌리관리이다. 모살이가 끝난 다음 논판물말리기를 끝고루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는 땅속에 생긴 류화수소가스가 제때에 빠지지 못해 논벼뿌리가 썩고 그로 하여 벼열병을 비롯한 각종 병들까지 겹쳐들어와 수확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자기 포전에서 이런 논벼가 한두포기정도라고 해도 농장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수확고가 감소되겠는가.…

드넓은 포전의 구석진 곳에 조금 고여있는 물마저도 스치지 않고 직접 퍼내며 논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귀에도 쏙쏙 스며들었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영양알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논물관리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었다. 그런데 논판물말리기를 정확히 진행한 포전과 그렇지 못했던 일부 포전을 놓고 따져보니 일수와 해당 잔뿌리수, 비대굵기가 심하게 차이났다. 이것이 종당에는 정보당 1~1.5t까지의 수확고차이를 가져왔던 교훈을 뼈에 새긴 농장일군들은 올해 논물관리문제를 매우 중시하며 요구성을 높이고있었던것이다.

결코 논물관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였다. 알고보니 농장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을 과학기술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었다. 큰 품을 들여 꾸려놓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도,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휴식참에도 지어 포전에서 일을 함께 하면서도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학습은 꾸준히 알심있게 진행되고있었다.

관리위원장의 포전에서의 강의도 바로 그 일환이였던것이다. 리당위원장 김정철, 기사장 류명학동무들도 이렇게 밤이 탈도록 포전을 돌며 농장원들의 과학농사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언제나 포전에서 농장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가는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 어찌 비약과 혁신의 자랑이 울려나오지 않을수 있으랴.

가을날에 펼쳐질 풍요한 작황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 관리위원장이 하던 말이 메아리쳐 울려왔다.

《과학농법을 하나라도 더 배워 자기 포전에 그대로 구현하려는 농장원들의 열의는 나날이 높아가고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얼마나 뛰며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장은영

자력자강이 대중운동의 성과를 안아온다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곡산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얼마전 평양곡산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공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때로부터 2년 남짓이 흘렀다. 그 기간에 어떻게 되여 방대한 대중운동결의목표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또다시 영예의 단상에 올라설수 있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초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이 설비국산화를 중핵으로 하는 현대화실현에서 또다시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은것은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때이다.

초급당위원회는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현대화를 70일전투의 중요목표로 내세웠다. 당과류직장에 있던 생산공정들을 분리하여 과자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이미 있던 사탕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끝내며 현행생산을 진행하면서 강냉이가공공정을 비롯한 앞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일것을 계획한 70일전투목표는 그야말로 방대하였다.

아름찬 과제를 놓고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매우 긴장해하였다.

이러한 때 초급당위원회가 잘한것이 있다. 과자생산공정과 사탕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담당한 일군들,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은것이다. 현대화실현의 기본담당자라고 할수 있는 그들을 먼저 분발시키는것이 현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보았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과자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 전투현장에서 현대화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모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진행한 다음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설비현대화에서 앞장섰던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을 내세웠다.

그들의 호소는 절절하였다. 우리모두 공연에서 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해놓은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많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자력자강,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실현의 근본방도이다. 설계도면만 말라. 어떤 설비든 우리가 기어이 만들어내겠다.

모임참가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모임은 그들로 하여금 기술신비주의,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을 불살라버리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나갈 의지를 가다듬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대담하게 설계전투에 뛰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치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발전된 나라들의 설비에 못지 않은 포장설비들을 설계해내고야말았다. 련속식탕의기계작을 단번성공에로 이어지게 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도 내놓아 사탕생산공정현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시키는 초급당일군들의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이 로동자, 기술자들을 일떠세로 분발시켰다.

무조건 제 날자에 우리의 손으로 기어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립장에서 기술자,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계가 완성되기 바쁘게 제작전투에 진입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과자생산공정설비들과 련속식탕의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게 되였다.

현대화실현을 추동하는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좋은 점은 또한 자력자강의 창조기풍이 온 공장에 나래치게 사상공세를 박력있게 벌려나간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전통을 계승하여온 공장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통한 교양사업이 큰 은을 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앞에서 종업원들의 결의모임을 조직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켰다. 생산현장들에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사진문헌과 명제판들을 모시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화하였다. 여기에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비롯한 선동력량의 힘있는 선동과 종업원들의 심장을 멀쩍 끌어는 직관선전을 배합하였다.

그 실효는 대단하였다. 직장마다에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모두가 자강력의 소유자,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런 실례가 있다. 현대화공사와 함께 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 보이라화실에 슬라크가 쌓여 보이라의 온영이 중지될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열관리직장 열관리공 김응일동무가 고열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슬라크를 뜯어낸 그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보이라운영은 정상화되였다.

그 어느 전투장에나 당정책을 신념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이런 충정의 인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자기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화, 체질화한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고 과학기술풍마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쥐게 되였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당앞에 결의한대로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하게 되였다.

지난해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대화공사는 방대하고 어려웠지만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을 믿고 대담하게 떨쳐나서도록 사상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 결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불길도 세차게 타번지였다고 하시면서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고,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김만손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생산공정의 지능화를 다그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속있게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대중운동성과는 나날이 높아갔다.

현대화는 단순히 기술혁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였다. 국산화를 중핵으로 하는 현대화과정은 그자체가 기술혁명인 동시에 사람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키우는 사상혁명,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혁명이기도 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당이 제시한 현대화방침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결사관철해나간다면 대중운동의 성과도 담보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책읽기를 통하여 고조시킨 학습열풍

대안친선유리공장 당위원회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독서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일할수도 전진할수도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며 책읽는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당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학습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다음 책읽기에서 일군들부터 앞장서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독서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화직장이 본보기단위로 선정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직장에서는 《책읽기에서 어느 작업반이 앞섰는가?》, 작업반들에서는 《책읽기에서 누가 앞섰는가?》라는 글이 씌여진 경쟁도표들을 게시하고 독서정형을 로작연구토론과 읽은책말표모임, 감상글쓰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매일, 매주 료해하고 총화하는 체계를 세웠다.

당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화직장에서 일어난 독서열풍이 온 공장에 더 세차게 일어번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일군들이 담당단위들에 나가 전기자동화직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범을 적극 본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는 직장별경쟁도표가, 직장들에는 작업반별경쟁도표가 게시되여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게 되였다.

독서열풍이 고조되는것과 함께 도서보장이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당위원회에서는 해당 단위와 련계하여 도서실에 절세위인들의 로작들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과학기술도서, 문예도서 등 수백권의 도서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정에 비치해놓고 보면 정치도서들과 기술서적 등을 공장에 가지고나와 서로 교환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 적지 않은 편향들도 나타났다. 일부 종업원들이 형식주의적으로 책을 읽거나 책읽기를 매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 일부 초급일군들이 종업원들의 특성과 심리에 맞지 않게 어떤 책을 몇페지씩 읽으라는 식으로 내려먹이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일군들을 발동하여 종업원들이 자기의 준비정도와 위미에 맞게 책을 읽으며 책읽기가 사업과 생활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로 되도록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결과 책읽기를 제올리하면 종업원들까지 독서에 점차 재미를 붙이게 되였고 그 과정에 독서열풍이 더욱 고조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출장지에 나가서도 책읽기를 정상화하는 일군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든 출장성원들이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독서정형을 학습강사의 날과 각종 모임의 전후시간을 리용하여 료해한 다음 당조직별로 주1차 총화대책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이 짬만 있으면 책을 읽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였다. 책읽기가 단순히 페지수나 채우는 식으로가 아니라 종업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공장의 생산정상화와 당정책관철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난 2월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내줄 수만㎡의 유리생산과제를 한달동안에 끝낸것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종업원들의 정신력이 낳은 기적이였다.

독서열풍은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당조직들이 실정에 맞는 참신한 방법론을 찾아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때 학습열풍, 독서열풍이 고조되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사회주의조선의 미래인 소년단원들의 앞길에 행복과 영광이 있으라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안겨준 격동과 흥분의 메아리

주체적소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대회합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넋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소년단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전도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진행된지도 여러날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북변 산간오지로부터 분계연선도시와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대회소식으로 들끓고 따사로운 혜님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만나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주체적소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대회로 성대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가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사변으로 뜻깊게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도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되였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싶다.

비서 김경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맞으며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주시고 전국의 모범적인 소년단대표들을 대회에 참가시킬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회의 규모와 일정, 대표들의 숙식조건을 비롯하여 대회준비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와 관련한 첫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올해 정초였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청년동맹일군들조차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어떻게 맞이할것인가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던 때였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며 그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기자: 옳은 말이다. 대회는 비록 끝났지만 지금도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소년단대표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과도 같은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이번 대회의 감동적인 화폭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어머이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부장 김현일: 동심은 거짓과 꾸밈을 모른다.

대회당일날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는 순간이였다. 대회장은 그야말로 폭풍같은 감격과 기쁨, 환희로 세차게 설레였다.

이 세상에 아이들을 위한 만가지 행복과 기쁨이 있다 한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직접 뵈옵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소년단대표들을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대회가 끝난 후 선생님에게 학습장우에 떨어지는 눈물방울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제대로 받아쓰지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와하는 학생도 있었다.

부부장 리철국: 대회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의 감격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날 절정에 달하였다. 드넓은 기념촬영장전체가 눈물의 바다, 환희의 바다였다.

온 세상이 부러움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싶은 마음은 한결같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소년단넥타이를 매여드린 아이들은 물론 수천명 소년단대표들모두가 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촬영이 끝났을 때였다. 미처 어쩔새도 없이 수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원수님-》 하고 목메여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 곁으로 밀려드는것이 아닌가.

그러는 아이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태양과도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회참가자들을 향해 한손을 높이 드시여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는 우리 원수님, 떠나시는 원수님을 따라서며 만세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치는 아이들.

우리는 그날의 뜻깊은 화폭을 통하여 우리 원수님과 아이들사이에 맺어진 떼려야 뗄수 없는 친혈육의 정에 대하여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떠우며 자라는 우리 학생소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긍지높은 세대라는데 대하여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기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기에 우리 소년단원들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며 조선소년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리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였다.

비서 김경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주체적소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이며 조선소년단발전의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뜻깊은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조국의 만년대계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연설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선소년단을 명실공히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주체적혁명조직으로 더욱 빛내이며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의 해바라기로, 사회주의강국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결의한다.

본사기자 리남호

축복받은 해바라기들

《그 애가 바로 우리 아들이예요.》

지난 7일 저녁 신의주시에 살고있는 장은주녀성은 격정으로 잠 못 이루었다. 금세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주석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로 곁에 앉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가 분명 아들 서정웅이였던것이다.

꿈만 같은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전화들이 연해연방 걸려왔다.

거리에 나서면 신의주시의 자랑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축하해주었고 어떤 낯모를 로인은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장은주녀성은 는굴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인민군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영예군인이다. 정범한 녀성영예군인의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먼저 떠나간 남편이 마치도 곁에 있기라도 한듯 속삭였다.

(정웅이 아버지, 보셨어요? 경애하는 원수님 곁에 앉았던 그 애가 바로 우리 아들이예요.)

아버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원수님의 팔을 꼭 잡고 기념사진을 찍는 삼지연소학교 단부위원장 최진옥학생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지난해 11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손가락을 펴보이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사진 딱 한장만 찍어주십시오.》라고 말씀올리는 그의 청도 허물없이 받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아버지원수님.

세번째로 기념사진을 찍은 소녀

그런데 원수님께서는 사진을 찍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지 않았던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그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아버지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전하였다. 그리고 우리 원수님께 날마다 5점꽃자랑을 전해드릴 간절한 마음담아 노래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를 눈물속에 불렀었다.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세번째로 기념사진을 찍는 행복의 순간에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 소년단원들을 제일 고와하셔. 난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언제나 아버지원수님께 기쁨만 드릴래.)

한편의 노래로 대회장을 울린 소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장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 그 손길로 우리 학생소년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던 소년단대표들.

선창자는 바로 평양중등학원 단위원장 최몽주학생이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환영장에서 최몽주학생이 올리는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시고 그의 두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최몽주학생에게는 부모가 없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따사로운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 안겨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하기에 최몽주학생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연단에서 원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웨치였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을 우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이처럼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우리들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정영철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최상최대의 행복을 받아안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한 온 나라 방방곡곡의 마음과 학교, 집집마다에 경사가 났다.

섬마을의 이 경사 온 나라에 자랑하세

《류경이가 돌아와요.-》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봉래도에 울려퍼졌다. 섬마을의 이 집, 저 집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길가로 달려나왔다.

순간에 사람들속에 묻혀버리는 소녀, 그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청단군 신풍고급중학교 봉래도분교의 한류경학생이였다.

《주석단에 앉아있는 네 모습을 텔레비존으로 보았다.》

《넌 섬마을의 자랑이야.》

저저마다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주는 선생님과 마을사람들에게 그는 끝없이 이야기하였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뵙던 그 순간의 감격과 흥분에 대하여, 대회기간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한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먼 옛날엔 묵지와 떨어져 외롭게 인생살이를 하는게 섬사람들이라 했건만 우리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 있어 이 땅에는 결코 외진 곳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마을의 이 경사를 온 세상에 자랑합시다.》

이윽고 섬마을의 하늘가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제가인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저 멀리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고마움의 노래를 부르는 섬마을학생들과 사람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꺼질줄 모르는 불빛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증산군 가마포고급중학교 초급 3학년 박성새학생의 집에서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금방 학교에서 헤여졌던 동무들이 또 찾아왔던것이다.

《성새야,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렴.》

《대표증을 한번 더 보자꾸나.》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이야기를 계속계속 듣고싶어하는 동무들에게 성새학생은 대회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행복의 생일상을 받아안고 눈물을 흘리던 소년단대표들에 대한 이야기며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던 꿈같은 이야기…

시간가는줄 모르고 앉아있던 동무들속에서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였다.

《성새야, 나도 너처럼 나무를 심고 가꾸겠어.》

《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어.》

너도나도 새 결의를 다지는 학급동무들을 둘러보며 박성새학생은 말했다.

우리모두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참된 아들딸들이 되자고.

내 한줌 밀거름이 되리라

화대군 화대초급중학교 운동장에서는 교원들이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김어금교원을 에워싸고 저저마다 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분단지도원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셨다지요?》

《이번 대회에 분단지도원들은 몇명이나 참가했었나요?》

거퍼 쏟아지는 교원들의 물음에 김어금동무는 다 대답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귀전에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선생님들에게 조선로동당과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싶었다.

김어금동무는 절절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학교교원들에게 말했다.

《이번 대회기간에 저는 우리 분단지도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절감했습니다.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와 교양을 전적으로 우리 분단지도원들에게 맡겨준 당의 믿음을 잊지 않고 저는 한생을 새 세대들의 밀거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전체 교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했다.

* *

우리는 여기에 수많은 격정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한다. 그러나 충정과 명세로 불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신철

방문기 소년혁명가가 될 맹세로 잠 못 드는 밤

보통강구역 신원소학교 최국진학생의 가정을 찾아서

지난 6월 9일 밤은 보통날 밤이 아니였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소년단대표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의 학교와 마을, 집집으로 돌아가 대회에서 받은 감격과 기쁨을 푸른 하늘의 종달새마냥 쉬임없이 토로한 행복의 밤, 내 조국의 또 하루 아름다운 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소년단원들이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열렬한 소년혁명가,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장한 모습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더없는 기쁨과 혁명하는 보람을 느끼고있습니다.》

우리가 보통강구역 신원소학교 단부위원장 최국진학생의 집에 들어섰을 때는 창가에 저녁어둠이 비껴들기 시작한 때였다. 모두들 외출복차림이여서 어디 갔다오는 길인가고 묻자 국진학생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만수대언덕에 갔다오는 길입니다.》

국진학생의 어머니인 리성금녀성이 설명을 달았다.

대회에서 돌아온 길로 국진이가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자고 하여 떠났다가 금방 집에 들어서는 길이라는것이였다.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국진학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민들레학습장을 펼쳐놓고 그 첫장에 《2017년 6월 6일》이라는 글을 정히 쓰고있었다.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글작품집 《혜님따라 대를 이어 필래요》를 삼가 올린 자랑을 안고있는 꼬마시인인 그가 올해 뜻깊은 소년단명절을 영원한 추억으로 남기고싶어 사랑의 민들레학습장을 펼쳐든것이였다.

대회장의 원쪽남개화석 4렬에 앉았던 국진학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며 눈물이 막 샘솟았다고 한다.

우리 원수님을 직접 뵈옵는것이 기뻐서 울고 그다음에는 원수님 가까이에 앉은 아이들이 부러워서 울었다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대회에서 토론하는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절실했습니다. 공부에서도 좋은 일하기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겠다는것을 말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국진학생의 아버지인 최지선동무가 한마디 했다.

《명세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단다. 우리 국진이 그 명세를 실천할수 있을가?》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부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자못 어른스러운 눈길로 마주보던 국진학생이 다시 펜을 잡고 민들레학습장에 한자한자 글을 써나갔다.

《아동단원 금순이는 아홉살, 나는 열살!

나도 아동단원 금순이와 같은 소년혁명가가 되겠습니다.》

사연깊은 민들레학습장에 또 박또박 명세를 적어가는 아들을 보며 최지선동무는 말했다.

머칠 안되는 대회기간에 아들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어른스러워졌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새 세대 혁명가의 순결한 넋이 국진이의 심장속에 한생토록 힘찬 박동으로 높뛸것이라고.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창밖은 더욱 어두워졌다.

하지만 소년혁명가의 꿈을 안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이들가정의 창가에서는 더욱 밝은 빛이 흐르고있었다.

어제 최국진학생의 집만이라. 온 나라 가정들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이야기 흐르고 그 사랑에 보답할 소년혁명가들의 맹세가 차넘치는 밤,

이 밤은 정녕 우리 당의 위대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뜨거운 밤, 우리 조국의 밝고밝은 앞날을 약속하는 희망의 밤이였다.

못 잊을 이 밤의 주인공들인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혁명의 불간, 사회주의강국의 기둥이 되여 세계의 앞장에서 씩씩하게 나아갈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눈부시고 휘황찬란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별들이 반짝이는 밤길에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명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용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서해연안의 간석지습지와 철새보호관리를 위한 민족토론회 진행

조선서해연안의 간석지습지와 철새보호관리를 위한 민족토론회가 12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련관부문 일군들과 국제자연보호련맹,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협력기구, 도이췰란드 한스자이델재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인간의 생존 및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철새보호사업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철새서식에 유리한 지역인 우리 나라 서해연안의 간석지습지에 대한 해설들이 있었다.

2.8직동청년탄광 3갱 채탄 3중대 당세포위원장 최용길동무는 제대배낭을 탄전에 풀어놓은 때부터 수십년간 채탄공으로 일하면서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중대가 월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던 때였다. 막장에 갑자기 짐이 오면서 채탄장이 막혀버렸다. 그 구간에는 석탄이 얼마 없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일부 탄부들이 그냥 넘겼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렇게 되면 비록 적은 량이지만 귀중한 석탄이 땅속에 묻혀버릴수 있었다. 최용길동무의 량심은 그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그는 갱도보수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댔다. 그의 이신작칙에 감동된 탄부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갱도보수를 앞당겨 끝냄으로써 중대가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하기에 이곳 탄부들은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그를 가리켜 우리 당세포위원장, 막장의 보배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교또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조명호,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김영웅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황해남도인민보안국 교통보안일군들은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70일전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어느날이였다.

벽성군 장천협동농장을 찾았던 교통보안일군인 지장순동무는 농장유치원이 지은지 오래되여 교양원들과 농장원들이 걱정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날 밤 지장순동무는 잠들수가 없었다.

(우리가 유치원을 건설해줄수는 없을가.)

당시 교통보안일군들은 어린이교통공원을 건설하느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유치원을 또 맡아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지 않은 일이였다. 결심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던 그는 당조직을 찾아갔다. 그의 의견을 듣고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는 길에 무엇을 주저하겠는가고 하면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인민보안국의 한 정치일군은 지장순동무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빛나게 살라고 우리의 어깨에 멸을 맡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 좋은 일이라도 더 하는것으로 복무자의 멸을 빛내입시다.》

지장순동무는 기뻤다. 얼마나 좋은 동지들인가.

그는 신심과 열정에 넘쳐 유치원건설을 짧은 기간에 해제낄 목표를 세웠다.

부서의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종전의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유치원을 새로 건설하는 조건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모두가 유치원건설에 헌신적으로 달라붙었다.

농장일군들이 로력을 보장해주겠다고 할 때에도 그들은 한창 모내기철인데 농사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교통보안일군들은 유치원을 면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하자고 하면서 수백리 떨어진 수도의 어느 한 유치원에까지 찾아가 경험을 배워왔다.

교통보안일군들의 가족들도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교양실들과 식당, 물놀이장, 지능놀이실을 비롯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수백㎡에 달하는 10일유치원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교통보안일군들은 예비를 탐구하여 교구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들의 옷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가물이 계속되여도 물을 넉넉히 보장할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세웠다.

어린이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선 10일유치원을 두고 온 마을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꽃피워가는 인민의 보안원들이 정말 다르다고 감동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한 농장원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작업의 업참에도 훌륭하게 꾸려진 유치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귀여운 딸애의 모습을 보고싶어 찾아가보군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안일군들을 키워낸 어머니 우리 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그들이기에 해주시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건설할 때에도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뻐스정류소가 건설될 때에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네일내일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짧은 기간에 인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리용할수 있게 뻐스정류소를 번듯하게 건설하여놓았다.

복무자의 멸, 그것은 바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빛난다.

하기에 이곳 교통보안일군들은 오늘도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걸고있으며 바로 그 길에서 값높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고있다.

특파기자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국경절에 즈음하여 12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알렉싼드르 마페고바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또한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은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한편 이날 청진주재 로씨야련방총영사관 성원들은 청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들을 진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벌리 자랑하고싶습니다

전쟁로병인 제가 이렇게 여든살이 넘도록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는것은 저를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허순실, 단성애, 서명희동무를 비롯한 배천국수집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는것은 새 세대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이동봉사를 진행해온 지배인 허순실동무와 종업원들은 올해 모내기철에도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습니다.

그 바쁜 속에서도 그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저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금쪽같이 기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있어 화목한 대가정의 웃음꽃은 더욱 활짝 피여나는것입니다.

어머니당과 승리를 같이하며 그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배천군 읍 163인민반 박양숙

백두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찬란한 민족의 미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파감히 쳐물리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조선의 핵무력건설에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강위력한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쥠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무력도발도 신속히 제압분쇄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그 무슨 《최대의 압박》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도 결코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자위적국방력강화의 길에서 우리가 거둔 모든 사변적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강철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과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다. 그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며 제국주의강적들을 무릎꿇게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배짱과 담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주체101(2012)년 3월에 있은 절세위인의 관문점시찰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관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 날카롭게 대치하고있고 가랑잎소리에도 순간에 긴장이 서린다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바로 이런 곳에 그것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던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자욱을 남기시였다. 이것은 누구나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관문점시찰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탁월한 선군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분렬의 장벽을 기어이 무너뜨리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당시 세계언론들은 그에 대해 전하면서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결단성과 담력에 있어서 제국주의강적과의 두차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초강경대응으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대로이시라고 평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비범한 지략과 명군술로 언제나 대승리만을 이룩해오시였다.

2015년 8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 의해 많은 위기들이 조성되였지만 이때처럼 군사적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적은 일찌기 없었다.

미국의 사촉하에 괴뢰군부깡패들은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덮어놓고 《북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며 심리모략방송을 재개하고 반공화국삐라살포에 광분하다 못해 신성한 우리 령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였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사태를 지켜보고있던 그 시각 세계는 백두령장이 안아온 신화적인 기적을 목격하였다. 무모한 도발책동에 광분하던 적들은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의지와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앞에 끝내 굴복하여 담판장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미제와 괴뢰패당이 미친듯이 몰아오던 전쟁의 위기는 가셔지고 무전무혈의 승리가 이룩되였다.

천하를 한손에 휘여잡는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령군술로 침략자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시고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온 겨레가 한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제국주의의 침략적도전을 영원히 짓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떨쳐세워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초강경대응으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대로이시라고 평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비범한 지략과 령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지난 5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난 승리의 달이였다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고민으로 가득찬 락망의 달이였다.

주체탄들의 성공률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지축을 울렸다.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기술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기적같은 소식들이 연방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에 울려퍼졌다.

세계가 조선의 주체탄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우리의 최후승리를 확신케 하며 적대세력들에게 형언할수 없는 전률과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5월의 하늘가에 새겨진 주체탄들의 비행운은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과산에로 몰아가는 빛나는 승리의 자리길이다.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동지를 틀고있는 하와이는 물론 알라스카도 완전히 우리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다는것을 똑똑히 확증해주었다.

주체탄의 조종전투부의 엄청난 대기권재돌입속도에 적대세력들은 그것을 막을 미싸일방위체계는 없다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다.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련발적인 뢰성을 울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에 설치된 촬영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지구사진을 보며 전문가들은 만도탄의 최종시험발사가 흠잡을데 없는 대성공이라고 주장하였다.

《북극성-2》형의 완벽한 성공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우리가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기술을 우리식으로 틀어쥐였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미본토가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는 우리의 경고에 대하여 《수사적위협》이니 뭐니 하며 애써 외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탄들의 대성공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것을 립증해주었다.

우리의 각종 탄도로케트들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만리대공을 날으며 주체조선이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되여있다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적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개별적목표들을 정확히 타격할수 있는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가 진행된 후 군사전문가들은 그것이 미핵항공모함을 겨냥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우리는 이번에 정밀유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통하여 조선반도수역으로 진입하는 비대한 적함선들을 초정밀타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세계의 대양들을 좁다하게 돌아치며 비핵국가들을 위협공갈하고있는 미핵항공모함타격단이 우리앞에서 떠는 체통자랑을 할수 없게 되였다. 미국의 항공모함우세론에 통구멍이 났다.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에 맞게 작전배치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은 우리가 미국이 제창하는 공중우세론을 얼마든지 제압분쇄할수 있다는것을 시위하였다.

5월의 승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한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되돌릴수 없는 종과산의 운명에 처하였다는것이다.

핵위협공갈과 경제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골간이다. 핵위협공갈의 기본수단은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골자로 하는 전략자산들이다.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강위력한 탄도로케트들의 파괴으로 되였다.

한마디로 미국이 광고하는 항공모함우세론, 공중우세론이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다.

비상히 강화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주체탄들은 적대세력들의 가장 악랄한 제재소동을 박차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며 우리가 만들어낸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다. 이것은 트럼프패거리들이 그토록 기대를 걸고 떠여달리는 고강도제재압박소동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것은 외면할수 없는 현실로 되여가는 본토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노린 력대 미행정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미본토안전에 대한 담보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주체탄들의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성공률성으로 그 안전담보라는것도 하늘로 날아나고있다.

주체탄들의 대성공을 두고 국제사회가 조선이 시공간적제한이 없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미싸일공격체계와 국가반항공방어체계의 일체화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평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5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주체탄들의 승전록음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멸망을 선고한 징벌의 뢰성이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의 주체탄들에 넋을 잃고 비명과 뒤빠진 탄식을 터뜨리고있다.

미국방장관 마티스는 우리의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가 성공한것과 관련하여 국방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조선과의 문제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믿기 힘든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것》이라고 토설하면서 추종세력들에게 외교적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여론들은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사용이 미국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과국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근심에 눌려있는 미국방장관의 번민의 토설이라고 평하였다.

마티스로 말하면 미군부내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호전광이다. 국방장관후보로 물망에 올랐을 때에는 우리의 핵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타격》을 골자로 하는 《조선핵시설타격계획》에 대해 은은해댔다.

이자는 2013년에 되여하였지만 이러한 호전적기질과 경력으로 하여 군부출신은 제대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이 될수 있다는 미국가안전보장법의 규정마저 뒤집고 미국회의 《특별승인》을 받아 장관이 되였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공격이 미국에 있어서 돌이킬수 없는 재난의 시작으로 될것이라는 국내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여론도 무시하고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에 재투입한다 어쩐다 하며 4월전쟁설을 류포시킨 장본인도 마티스이다.

이런자가 지금 불안속에 허덕이고있다. 지난 5월 28일에도 마티스는 만리창공에 승리의 비행운을 새기는 우리 전략로케트들의 대성공에 락심하여 《조선과의 충돌은 인류사상 최악의 전쟁이 될것이다.》라고 또다시 우는소리를 하였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주체탄들의 련발적인 성공률성으로 하여 깊은 고민에 빠져든 미호전광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이제 미국에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력점을 찍었다.

조선의 핵보유국지위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러쿵저러쿵 공리공담하는것은 완전한 현실도피, 자기 기만이며 미국에 불의워지게 될 조선의 핵탄두와 로케트가 얼마만한 시간에, 어느 정도로 불어나는가가 관건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이다.

오늘에 와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아메리카제국의 숨통을 분분초초 조이는 올가미로 되였다.

5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진 승전뢰성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가리키는 진로를 따라 이미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핵강국건설위업의 정당성과 최후승리의 필연성을 웅변으로 확증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는 주체조선의 승전뢰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게 하는 원동력이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혁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직접 구상하시고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착상하고 연구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위험천만한 전투현장에도 스스럼없이 찾아오시여 국방과학전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주체무기들의 개발완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세계언론들도 조선의 로케트개발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전면적으로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거의 모든 신형로케트시험발사과정을 직접 지휘하고계신다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선진적인 로케트개발에서 조선이 련이은 승리를 거두고있는 기본요인으로 된다고 공인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피수의 멱살을 움켜쥔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명주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다.

미국이 주체조선의 위력과 의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계속 도전해나선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 효 진

《미래를 사랑하라!》

지역기구 인터네트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가 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숭고한 미래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후대사랑이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올해 6월 6일은 《미래를 사랑하라!》라는 사회주의조선의 후대관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는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서는 몇해전 평양에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소년단대표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으며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즐길수 있는 교육시설과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명승지들마다에 소년단야영소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이것은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미래를 사랑하라!》, 이 구호를 시종일관 들고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7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해 밝히고있다.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이 반영되여있는 선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러나 리명박, 박근혜괴뢰패당에 의해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공동선언은 리행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을 반대하며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하여 과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은 하나다!

그 어떤 제재로도 조선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린 승리의 포성에 당황망조한 적대세력들이 비렬한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도이췰란드, 영국단체가 5일과 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핵무력강화를 위한 조선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걸고드는 《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낸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천만부당하고 불공평한 처사는 《안전보장리사회》가 《불안조장리사회》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제 마음대로 세계를 우롱하며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탄도로케트를 발사해도 되지만 조선은 하면 안된다는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다.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살인방화를 일삼으며 제멋대로 날뛰는 미국은 눈감아주고 조선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에 대해서는 한사코 걸고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되였다.

조선이 틀어쥔 정의의 보검은 적대세력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가차없이 짓뭉개버릴것이다.

그 어떤 제재로도 조선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그 어떤 제재압박속에서도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로 격화되는 대립과 마찰

미국과 여러 나라들사이에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럽을 행각하였다. 그는 먼저 브류쎌에 첫발을 들여놓고 유럽통령 고위인물들과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나토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이어 이딸리아로 가 7개국수뇌자회의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유럽을 행각하면서 친선과 단합을 과시한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사이에 잠재해있는 모순과 대립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특히 도이췰란드를 로골적으로 헐뜯고 비평하였다.

트럼프는 유럽통령 고위인물들과의 회담시 《도이췰란드인들은 확실히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이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대수는 100만대에 달한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도이췰란드수상이 그 일이 있은 다음날 그러한 혹자는 배를 린의 통제밖의 요인들에 부분적으로 기인된다고 설명하고 자국의 대미직접투자로 오히려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반박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트럼프는 유럽행각을 마친 후 백악관에 돌아가 자기 트위터에 《우리는 도이췰란드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다. 게다가 그들은 나토방위에 지출해야 할 액수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고있다.》라는 비난글을 게재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또다시 드러내보였다.

도이췰란드도 미국을 고양이 개보듯 하며 뻣뻣하게 나가고있다.

이미 유럽통령과 도이췰란드는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이다.

어느 한 연설에서 도이췰란드수상은 《일정한 정도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만만치 않게 대응할 자세를 취하였다.

나토사무총장까지도 트럼프가 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동맹국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될것이며 종당에는 유럽에서 신용과 명예를 다 잃게 될것이라고 개탄하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반감을 가지고 미국을 대하면서 대미리탈전략을 모색하고있다.

언론들이 트럼프가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비롯한 주요문제들에서 저들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며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는것이 례상사로 되였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선거전때부터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고 저들에게 손해를 주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겠다고 으르렁거리였다.

현실적으로 지난 4월말 그는 다른 나라들, 세계무역기구 등과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데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미상무성과 통상대표부가 앞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무역협정들을 조사한 후 그에 관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상무성에서는 무역과 생산정책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기구를 내오며 그를 통해 미국에 얼마만한 경제적리득을 가져왔는가를 분석하여 트럼프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여있다.

10개 나라가 미국의 무역에 해를 주는 나라로 지목되였다.

트럼프가 카나다, 메히꼬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라 미국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공식 착수하였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자유화할데 대해 미국, 카나다, 메히꼬 세 나라가 합의하고 맺은것이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망라된 카나다가 자기 나라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목재와 우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메히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공장들과 좋은 일자리를 메히꼬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난이라고 자주 비난하고있다. 미국은 물리적장벽건설문제, 자동차수입관세부과조치 등으로 이 나라와의 관계를 랭랭하게 만들고있다.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식으로 카나다와 메히꼬도 미국의 조치에 엇서나가고있다.

카나다는 이미 미국의 우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메히꼬도 자국의 리익이 침해당한다면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서의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립장을 밝히면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를 예고하였다.

시장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는 대립되고있으며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것이 오늘의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경제발전방향에 대해 언급

카나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가 7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카나의 경제도 1차상품수출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언제 가도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복리를 가져다주는것이 오늘 카나정부의 선차적과업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빈궁을 청산하고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녀성들과 청년들이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원개발에서의 지역적협력 호소

부룬디대통령 뻬에르 은쿠룬지자가 7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원개발사업에서의 지역적협력을 호소하였다.

동아프리카지역에 가스, 원유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다고 하면서 그는 그러한 자원을 개발하는데서 지역나라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지역의 정치경제적자립을 강화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프리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입만 열면 썩을대로 썩은 자본주의사회를 두고 《현대문명의 표본》이니 뭐니 하고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곡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문명》이라는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려 해도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암흑사회의 진면모는 드러나기마련이다.

교육의 불모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나라와 민족의 얼굴이고 미래이다.

이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나라의 억군으로 되는가 우환거리가 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그러나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창 배울 나이의 청소년들이 반인민적인 교육시책으로 하여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학교기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대학들에서의 입학률은 56.8%였다고 한다. 입학률이 이렇게 낮은것은 수험생들이 설사 대학시험에서 합격되였다고 하여도 엄청나게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는것과 관련된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녹다고 하는 공립대학은 4년간 학비가 470만¥정도이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50%나 더 비싸다고 한다.

일반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지원기구와 일부 지방, 민간단체들에서 제공하는 대부금을 받아 공부하고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반납해야 하므로 결국에는 졸업하자마자 수백만¥의 빚을 지게 된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는 대학공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학생 1명당 평균 5만£을 넘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고 문맹을 강요하는 암흑세상, 교육의 불모지이다.

범죄자들의 천국

자본주의나라들은 겉으로는 번창한것같이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안으로는 날로 심화되는 각종 사회악으로 하여 썩어가고있다.

특히 악성종양으로 되고있는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말세기적인 풍조를 여실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는 달리 돈벌이수단으로 되여버린 자본주의사회의 일단을 보여준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들의 배움의 권리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고 돈이 없으면 헌대판문맹자가 되여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미국에서는 렬기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거의 매일이다싶이 일어나고있다.

어느 한 신문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4월말까지 시카고시에서 총기류범죄로 1 050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전역에서의 총기류범죄건수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5만 7 000여건의 총기류범죄가 감행되여 1만 4 000여명이 사망하고 3만명이 부상당하였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범죄자들이 대낮에 무고한 행인들을 총으로 쏘아눔히는 사건이 일상사로 되고있으며 상상하기 어려운 각종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람들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도이췰란드의 한 철도역에서는 2명의 범죄자들이 도끼를 마구 휘둘러 6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에스빠냐의 남부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승용차로 사람들을 짤아붕개는 만행을 저질렀다.

프랑스에서는 한 범죄자가 사람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러대는 바람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으며 뽀르뚜갈의 리스본교외에서는 한 녀성이 자기의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죽인 사실이 드러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실태는 바로 이렇다.

갖은 미사려구로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치장하려 해도 그것은 오물을 비단보자기로 감싸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독버섯처럼 길만 번지르르한 자본주의사회는 인류문명에 기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은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 수 진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경제장성전망

르완다에서 경제가 올해에 6.2% 장성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다음해에는 경제장성률이 6.8%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8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감냉이생산 증대

짐바브웨에서 2016년-2017년농사계절에 210만t의 감냉이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그전 농사계절에 비해 4배나 많은것이라 한다.

8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관광업발전

에티오피아에서 관광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8일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대륙별호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그 목적은 나라의 관광봉사활동을 개선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매해 관광객수가 약 100만명에 달하고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관광업분야에서 242만 2 000개의 일자리를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여러 나라들 협조

잠비아와 마다가스까르가 8일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빠리협정을 리행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6일 말라와 기네는 두 나라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채택하였다.

농업생산전망

브라질에서 2017년-2018년농사계절에 알곡생산량이 그전 농사계절에 비해 24.3% 더 증가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7일 정부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앞으로 농업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생산량을 계속 늘이도록 하는데 국가적투자를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배격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 대사에 대한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의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이 자국주재 로씨야대사를 미국정치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간첩이라고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인신공격으로, 정보쓰레기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는 로씨야대사를 간첩으로 묘사하는것은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로 절분이라고 강조하였다.

테로와의 투쟁을 강조

에찌오피아무성이 8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란에서 일어난 동시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를 가장 극악한 살인만행으로 락인하고 국제공동체가 테로와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플레률 감소

필리핀에서 5월에 인플레률이 4월의 3.4%로부터 3.1%로 감소되였다.

6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7109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